

大學教育改革—새 活路摸索

金 容 善

(全南大 副教授)

I.

時代와 社會가 급격하게 변할수록 그에 발맞춰 教育은 새 活路를 모색하게 된다. 政治에도 經濟에도 適者生存의 법칙이 云謂되고 있는데 教育이라 해서 例外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른바 Darwinism은 可否야 어쨌든 現實的인 課題임엔 틀림이 없다. 金鍾喆교수는 現代를 人口폭발, 教育폭발, 上昇期待의 폭발이라는 말로 표현했고 UN에서도 70年代를 '60年代의 教育危機에 對處' 「教育의 해」로 宣布하게 된 緣由를 소개한 바 있지만 '80年代의 오늘' 이 時點에서 볼때 '폭발의 時代'가 齊來케한 危機狀況은 어느 意味에서는 그 濃度를 더해가고 있다. 특히 大學教育의 경우 예상되었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풀기 힘든 難題로 擡頭되고 있는 것이다.

Martin Trow는 大學의 目的의 變遷의 단계를 엘리트型, 大衆型, 普遍型으로 나누는 바 있는데, 韓國도 이미 당해 연령층 35% 이상이 취학을 보게된 大衆型 時代로 突入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大學이 팽창하게 된 要因으로는,

첫째, 單線型 學制下에서 大學의 門戶開放.

둘째, 高學歷 指向으로 現社會體制가 유인(誘因)으로 되고 있는 점.

세계, 技術革新 및 이를 基軸으로 한 經濟成長은 科學者, 技術者의 需要增大를 가져왔고 그중 理工系를 中心으로 擴大된 점.

네째, 經濟成長과 더불어 父兄의 學費 부담능력이 늘어난 점.

다섯째, 學問發達, 專門의 細分化라고 하는 學問의 內在的 要請과 보다 많은 새로운 分野의 專門職 養成이라고 하는 社會的 需要가 學部·學科의 新設 擴大를 가져온 점 등을 들 수 있는데 오늘날의 大學教育이 이렇듯 大規模化, 多樣化, 大衆化하게 된 데에는 위에 든 理由以外에도 實際에 있어서 中學校까지 義務化된 것이나 다름없이 進學率이 급상승했고 高等學校에로의 進學率도 못지 않게 상승하고 있어, 그 힘이 그대로 大學進學에의 압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James A. Perkins는 이런 추세 때문에 팽창일로를 거듭하고 있는 大學은 multi-versity化되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어느 線에서 팽창이 멎을 것인지 예측할 수 없고 指揮系統의 喪失, 原則의 붕괴, 大學의 硬直性 등 때문에 가능할 수 없는 不安을 안겨주고 있다고 말한다. 원래 大學은 人類가 共有할 文化遺産인 知識을 獲得, 傳達하고 應用하는 세 가지 機能을 가진 것으로 되어 있으나, 오늘날의 大學은 그런 일以外에도 부가해서 遂行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다. 傳統의 大學이 生産指向의이며 個人的 努力이 中心인데 대하여 大衆型 大學은 消費志向的, 改革志向的이며 集團의 行動이 中心이 되고 있다. 즉 前者가 社會秩序의 生産 및 再生産을 目的함에 대하여 後者는 社會秩序의 改革을 重視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이제 大學은 社會의 創造的인 部分 이라기 보다는 適應的 部分으로 파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大學이 지나야 할 學問性 提高라든가 研究 및 高度의 專門的 職業教育이라고 하는 엘리트的 機能을 간직하면서 時代趨勢에 隨應해 가야 할 適切性에 관한 문제도 아울러 안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몇가지 當面한 問題들을 적어 보면

첫째, 低所得層 出身의 學生과 成人등 새顧客層을 맞아들임에 있어 大學은 어떻게 對處해야 할 것인가?

둘째, 現在의 社會體制를 現狀대로 支援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方向으로 改革해 갈 것인가에 관한 論爭에 어떤 立場을 取할 것인가?

셋째, 한편으로 補習教育, 다른 한편으로는 레저(leisure)로서의 學習要求를 새 教育過程으로서 開發하는 일.

네째, 學生에게 自信感과 成就意欲을 북돋게 할 새 評價基準의 開發

다섯째, 大學에 들어 올 新入生 選拔에 관한 적절한 方法의 創出.

여섯째, 大學運營에서 提起되고 있는 財政·管理分野의 效率性·能率性 문제.

일곱째, 就業·敎養의 兩面을 同時에 充足시킬 수 있는 大學커리큘럼의 改革

여덟째, 學生·敎職員을 위해 厚生福祉施設의 擴充과 課外教育活動에 대한 方案의 모색.

아홉째, 政治化 경향을 띤 學生運動에 관한 學生指導的 次元에서의 對策.

大學에 대한 이와 같은 注文과 要請은 大學의 機能과 構造에도 變化를 가져오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高學歷化로 치닫고 있는 社會的 條件인 上級學校에로의 進學熱望, 靑少年期 全期間을 學校機關에서 보내지 않으면 안되는 일, 그에 隨伴하는 家計負擔, 高學歷을 要求하는 職業의 增大, 知識情報社會에 必要한 知的 專門職의 增大 등은 서로 모순되는 경우가 많다. 아뭏든 高學歷者의 量産體制는 갖가지 逆機能을 나타내고 있는 바, 學歷과 學力の 不一致, 教育成長과 經濟成長의 不均衡에서 오는 高學歷者의 失業率 增加, 學歷에 맞지 않는 職業에의 陷入, 그에 대한 教育浪費문제 등 아직 韓國에는 그와같은 現

象을 덜 빚고 있지만, 미국과 일본의 경우, 博士學位所持者의 大量未就業 문제는 反學歷主義 反學校主義를 부채질하고, 中途怠學者數를 급증케 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最近 數年間 혹심한 경제불황은 高學歷者와 大學在學中인 者들에게 希望과 意欲을 散逸케 하고 있을 뿐 아니라 學園不安의 씨가 되고 있음을 看過해서는 안될 일이다.

II.

韓國에 있어 大學教育 改革은 具體的으로는 1972년부터 發足을 보게 된 「大學의 實驗大學體制로의 轉換」을 들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몇가지 決定的 要因들 때문에 坐礁해 버린 느낌마저 갖게 하고 있어 제제에 實驗大學 문제의 功過를 類別, 마무리 짓고 大學이 새로운 活路를 찾는다는 意味에서 제 2단계 教育改革의 旗幟를 울려야 할 必要性을 切感케 한다. 보는 立場에 따라 既往의 實驗大學은 크게 成功하지 못했다고 단정할 수도 있고, 部分的인 成功을 認定할 業績이 없는 것도 아닐테지만, 한 가지 分明한 것은 표방하고 나선 改革에 대한 意志나 理論의 背景은 크게 맞할 만한 것이 없다는 事實이다. 다만 提示된 理想에 隨應하지 못한 現實의 不如意가 失敗라는 烙印을 찍도록 한 것이다. 學點의 下向調整, 副專攻, 複數專攻制, 選擇科目을 폭넓게 開設하는 일, 專攻進入까지 1年間の 觀察期 設定, 早期卒業制, 基礎道具敎科目의 試驗合格에 의한 免除 등은 時宜에 맞는 構想이나, 豫測하기 어려운 變化가 급격하고, 多樣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現代와 같은 社會에 있어서는 융통성 있고 力動的인 대응책이 大學教育課程에 準備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改革의 不可避性을 認定치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進學希望者의 大幅的인 增加, 適性素質은 물론, 學生自身이 지닌 學力을 감안하지 않은 채 一流大學을 志望하는 病的 選好性, 增加一路의 再修生 累積, 大學의 敎授要員 不足과 施設·收容能力의 未洽 등은 大學이 量産體制로만 突入했을 뿐 質的 提高라는 면에는 可謂 速手無策의 상태인 것이다. 敎授內容의 빈약, 多人數

學級の 放置, 圖書館施設의 名目化, 技術革新 時代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知識情報, 미봉책만 반복하고 있는 學生指導, 就業문제에 대한 消極性 등 一難去하면 一難來式으로 問題는 嚴重해 가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教育的 功역은 이웃 日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大學을 大學化하기 위한 構想이 갖가지 側面에서 講究되고 있다.

天城 勲등 大學教育의 改革을 唱導하고 나선 一團의 主張들은 筑波大學, 廣島大學, 東京工業大學에서 그 實驗이 成就되고 있어 斯界의 注目を 끌고 있는 데, 그들이 提示한 바 있는 改革에 대한 基本構想은 實驗大學문제를 再照明하고 앞으로의 教育改革事業에 準例가 될 만한 項目들이 있다. 參考토록 紹介해 보면,

첫째, 高等教育의 多樣化를 圖謀키 위해 다음과 같은 標準的인 履修年限에 의한 種目化와 目的·性格에 따른 教育課程의 類型化가 所望스럽다. 同時에 다른 種別, 類型間에 轉學의 길을 적극적으로 넓게 마련한다.

① 第一種(假稱大學)은 3~4年の 教育機關으로(3년이 좋다), 類型으로서는 綜合領域, 專門體系, 目的專修의 세 教育課程을 생각한다. ② 第二種(假稱短期大)을 2年制로 類型은 教養을 주로 하는 것, 職業을 주로 하는 것으로 한다. ③ 第三種은 高等專門學校이다. ④ 第四種은 第一種 修了者에게 2~3年の 高度의 學術教授를 행하며 또 一般 社會人에 대해서도 같은 程度의 再教育을 행하는 機關으로 이를 大學院으로 한다. ⑤ 第五種은 高度의 學術研究를 행하는 機關으로 여기에서 博士學位를 授與한다. 研究院이라고 稱한다.

둘째, 第一, 第二種의 教育課程은 目的에 따라서 再編成되지만 一般教育의 精神은 全體의 教育課程 속에서 살리도록 한다. 예를 들면 專門基礎教育은 專門教育에 統合한다. 外國語教育은 그 活用能力의 育成에 注力하며 學內의 檢定制도로 한다. 保健教育은 課外의 體育活動과 保健管理의 철저화로 充實을 期한다.

세째, 教育方法과 그 指導形態에 따라서 教育機器의 利用, 小人數의 演習, 實驗, 實習 등 改善을 圖謀한다. 學生의 體育的, 文化的 活動에 관해서는 專門家를 두고 充實한 學生生活을 누

릴 수 있도록 指導와 援助를 한다.

네째, 一定年齡層의 學生과 特定基礎學歷者에 限定치 않고 必要의 意欲을 가진 國民에게 널리 開放한다. 各種機關의 個別的인 單位를 綜合하여 資格을 認定하는 制度를 정한다. 종래의 學士, 碩士, 博士에 대한 種類의 簡素化를 검토한다.

다섯째, 學生의 教育組織으로서의 教員組織을 整備하고 同時에 그 教育機關의 目的 性格에 맞는 研究條件을 整備한다. 大學院과 研究院에서는 教育, 研究를 區別, 各各 合理的인 編成을 함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研究院은 高度의 學術研究를 行하는 者의 研究, 修練을 위한 指導·管理組織이다. 大學院 및 몇 개의 研究所에 併置할 수 있다.

일곱째, 內部組織의 割據를 피하고 學內外의 影響力에 의해 活動이 妨害됨이 없이 自律的인 管理運營이 될 수 있는 制度를 確立한다. 이를 위해 教務, 財務, 人事, 學生指導 등 全學의 重要事項에 대해서는 總長, 副總長을 中心으로 하는 中樞機關에 의한 計劃, 調整, 評價의 機能을 重視한다. 同時에 適當한 機關에 學外 有識人士를 參加시키고 適切한 領域의 문제에는 學生參加를 實現시킨다.

여덟째, 人事의 閉鎖性을 타기 위해 教員의 選拔과 業績評價에 대하여 學外의 專門家의 參與를 公式化하거나 任期를 정하는 등 改善을 圖謀한다. 給與制度를 改善하고 教育的 努力을 助長하는 制度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홉째, 國公立의 高等教育機關이 그 設置者와의 關係를 分明히 하고 自律性과 自己 責任을 가지고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① 새로운 形態의 法人으로 한다. ② 管理運營의 責任體制를 確立하고 設立者(國家)와의 關係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새로운 管理機關을 둔다.

열째, 長期的 教育計劃에 바탕을 두고 私學에 대해 財政援助方式을 確立한다. 學生의 授業料 등의 부담과 獎學制度에 대하여 根本的으로 검토 한다.

열한번째, 私學에의 國庫補助가 不可缺하기 때문에 高等教育의 全體規模, 目的, 性格別로, 專攻分野別의 規模, 地域配置 등에 대하여 長期的

教育計劃을 세울 公的 體制를 確立한다.

열두째, 課外活動의 充實과 生活環境의 整備에 대하여 풍부한 學生生活을 保障한다.

열세번째, 入試制度를 ① 調査卷를 基礎資料로 한다. ② 廣域共通 테스트를 開發하여 高校의 評價水準의 較差를 補正한다. ③ 專門分野別로 能力테스트를 행하고, 論文, 面接을 행하고, 總合判정의 資料를 더한다고 하는 方法으로 改善한다.

以上の 提案을 세밀히 검토해 보면 現在 韓國의 大學教育 '내지 高等教育이 그 機構, 組織, 教育, 研究體制面에서 外形의으로는 日本이 理想으로 하고 있는 水準임을 알 수 있다. 韓國은 教育流行에도 결코 뒤지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할 정도다.

Ⅲ.

Eric Ashby는 「어떤 文明社會에서도 將來 人間들이 直面하게 될 일을 豫測하고 그 경우가 되면 그에 隨應할 수 있도록 知識을 넓히고 知識을 消化하고, 知識을 展開시키기 위한 制度를 만들어 내려고 努力한다. 이와같은 일을 해내는 制度中에서 大學은 가장 重要한 制度인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지만 아직도 武力을 위시한 各種 資源의 保存, 經濟的, 文化的 位置를 우월한 立場에서 確保하려는 努力들이 各國間에 競爭的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는 차라리 生存權의 保障이라는 側面에서도 尖端 科學技術을 남보다 優先해서 發展시켜가는 일은 最高의 國家的 課題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大學에 대한 視角은 支持(Support)와 調整(control)이라는 면에서 講究되어져야 할 바가 너무도 많다. 다만 銘念할 일은 大學쪽에도 難題解決의 萬能處方이 없다는 것을 생각해서 國家나 社會로 부터 恰當한 要求를 期待케 하는 일이다. Clark Kerr는 膨창된 大學, 巨大化한 大學을 'multiversity'라는 새로운 用語를 만들어 표현하고 이런 大學에 대한 새로운 形態의 大學 管理制度의 必要性을 強調하였다. 大學의 本質

을 守護하면서 또 時代의 變遷과 社會의 要請에도 充足의 能力을 보이고 아울러 大學의 內部的 統合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는 宿題가 아닐 수 없다. George Beadle(Chicago大 總長)의 우려대로 巨大大學이 지난날의 '恐龍의 運命' 처럼 몸둥이만 肥大化되고 그에 따른 精神的 成長이 缺如된다면 그 將來는 豫測되고 남음이 있다.

Ⅳ.

이제 누가 뭐라해도 "韓國의 大學은 第2의 跳躍期에 접어들었다"고 말해서 지나칠 것은 없다. 中進國水準의 위치에서 量과 多樣性의 면에서는 뒤질 바가 없다. 나머지 課題는 어떻게 하면 質的 提高를 가져오게 하느냐인데 이 일도 政府·大學·學生 三者의 意志문제가 絕對的이라는 事實을 看過해서는 안되겠다. 새로운 制度를 앞다투어 案出해 내기 보다는 既往의 制度를 根幹으로 끈기를 가지고 이름 그대로 '實驗'을 해가는 일이 아쉬운 立場이다. 아무리 잘 만들어낸 結작품이라 하더라도 完全完美하기는 어렵고, 서툴고, 粗雜하다해서 당장에 버려야 할 것도 많지 않다는 것이 許多한 경험을 통하여 우리는 알고 있다. 大學도 餘他的 일에서와 마찬가지로 國民的 合意위에 自己位置를 定해가야 하며 우리 學生들이 大學에 머무는 期間이 延長되고 있다는 點을 감안, 學問의 場일 뿐 아니라 生活의 場임도 잊어서는 안되겠다. 教授는 學問의 權威에도 卓越해야 하겠지만 人格의 高邁함에도 拔群할 것이 要請되며, 아울러 學園內의 諸施設·環境도 學問領域別로 充分한 學術活動이 營爲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젊음과 人生을 함께 즐길 수 있는 遊樂保健施設에도 깊은 配慮를 해야 한다. 世界水準의 大學을 건설한다는 일은 一朝一夕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大學人 모두가 創意와 協同으로 汗流같이 希求하면서 精力의 人實踐을 續行해 갈 때 可能해지는 것이다. 外部의 變化에 지나치게 敏感하여 한해가 멀다하고 너무 빈번하게 고쳐지는 「改革」은 이제 그만 止揚할 時機가 오지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한다.*